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심용철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나아가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에 따라 폭력행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이 변인들이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중소도시인 C지역 소재 3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C 소년원의 원생들이었으며, 측정도구로는 충동성 척도, 공격성 척도 및 폭력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은 충동성 및 공격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 집단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충동성 및 공격성수준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집단의 경우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폭력행동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행집단에서는 학년간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들의 폭력행동수준은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충동성 수준과 폭력행동의 상관은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청소년 폭력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관한 공식자료(대검찰청, 1998; 문화체육부, 1997)에 따르면, 범죄의 유형별 분포에서 폭력범죄 차지하는 비율(36.2%)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에서도 1996년의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992년에 비해 4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최근의 청소년 폭력행동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임영식, 1998), 전체 조사대상자의 68.2%가 학교폭력을 한 경험이 있고, 61.8%의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정신장애를 보이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매우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준호,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학생 청소년들간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폭행범은 기질적으로 충동성이 높고, 어렸을 때 싸움을 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아가

* 본 연구는 1997년도 강원대학교 기성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폭행경험이 많을수록 충동성이 높고, 어린 시절의 공격성향이 높았으며, 또한 조발성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범법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충동성이 더 높고, 어린 시절의 공격성향도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조은경, 199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 행동 또한 충동성 및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과 폭력행동을 측정하여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학년·성별 및 정상·비행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충동성과 다른 심리적 특성 및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에 따르면, 충동성은 반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견해가 많다(Cleckley, 1976; Eysenck, 1977; Robins, 1978). 특히 충동 통제력의 결핍은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과 반사회적 행위가 미래에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비행행동을 직접 유발할 수도 있고, 나아가 학교 및 학업생활에서의 성공을 방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행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Moffitt, 1993). 실제로 높은 충동성 수준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심각한 반사회적인 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arrington, Loeber, & Van Kammen, 1990; Wilson & Herrnstein, 1985), 충동성을 인지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White, Moffitt, Caspi, Bartusch, Needles, & Stouthamer-Loeber, 1994)에서도 두 차원의 충동성이 모두 비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차원 중 행동적 충동성과 비행과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적이고 심각한 비행을 한 소년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행동적 충동성 수준에서 1σ (표준편차)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충동성이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격성은 도구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과 정서적 공격성(emo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Berkowitz, 1993). 전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격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감정에 따라 공격하는 경우로, 공격행동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공격행동(aggressive behavior)이란, 타인에게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의미한다(Berkowitz, 1993).

공격행동과 폭력행동은 개념이나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공격행동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공격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넓은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폭력행동은 주로 인간행동의 비합리적인 공격행동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즉, 공격행동과 폭력행동은 상대에게 피해를 가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행위의 동기가 비규범적이고, 비합법적인 경우에는 폭력 혹은 폭력행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러한 폭력행동을 포함하여 본능적이거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정당방위), 그리고 규범상 합법적인 경우를 모두 총칭하여 공격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심응철, 1996).

최근으로 오면서,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1998; 문화체육부, 1997; 임영식, 1998). 청소년 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김준호, 1997; 임영식, 1998), 폭력 행동을 자주하는 당사자들은 물질남용을 더 많이 하며, 자살기도를 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rosz, Lipschitz, Eldar & Finkelstein, 1994).

이러한 청소년 폭력의 증가와 관련된 요인들로는 폭력의 일반화(pervasiveness)와 성인들이 자신들의 파괴성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것 등이 포함되

며(Eisen, 1977), 폭력행위자의 부적응적인 신념체계 및 약물사용 등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은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더 자주 무기를 소지하였고, 더 자주 싸움에 연루되었으며,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ngery, Mirzaee, Pruitt, & Hurley, 1991). 이외에도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충동성 및 공격성이 폭력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은경, 1997).

폭력 경험이 많은 40명의 입원 청소년들과 폭력 경험이 없는 36명의 입원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Grosz, Lipschitz, Eldar & Finkelstein, 1994), 폭력 청소년 집단이 더 충동적이고 자살 위험이 더

아는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에 따라 폭력행동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동시에 이 변인들이 연령(학년) 및 성별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및 측정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중소도시인 C지역에 소재한 2개 중학교 및 1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825명을 정상집단으로, C소년원에 재학중인 159명을 비행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측정기간은 1999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였다. 여러 대상자들의 학년 및 성별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 분포

	중 학생						고등학생						합 계		총 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정상집단	65	86	80	116	78	103	25	98	88	86			336	489	825
비행집단	23		33		44		27		19		13		159	0	159
전 체	88	86	113	116	122	103	52	98	107	86	13		495	489	98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164명의 남자 살인범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보면, 충동성이 높은 집단이 재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가석방에 실패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eilbrun, Heilbrun & Heilbrun, 1978). 이러한 연구결과는 폭력이 충동성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격성과 폭력행동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Mehrabian, 1997), 나아가 충동성 및 공격성 등의 성격 특질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의 발생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sen, 1988).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폭력행동은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과 폭력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나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사용한 측정도구는 충동성, 공격성 및 폭력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두 3 종류의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충동성 측정은 이현수(1992)의 '충동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는 Buss와 Durkee(1957)가 제작한 것을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4명의 심리학자로부터 문항 수정을 받아 완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93$ 이며, 5가지의 하위척도(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원한, 의심)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수는 59문항으로 모두 강제선택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0문항은 도치되어 있다.

폭력행동 질문지는 청소년들의 폭력행동 경험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형태(self-report questionnaire)로, 심용철(1992)과 심용철 및 양돈규(1998)가 작성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질문지'에 포함된 폭력행동의 문항과 현실적으로 폭력행동으로 분류되는 문항을 첨가하여 전체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폭력행동 질문지는 다시 5개의 하위 유형(공갈협박, 기물파손, 성폭력,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으로 구성되었으며, 폭력행동 질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결 과

1. 충동성, 공격성과 폭력행동간의 상관관계

충동성, 공격성과 폭력행동(전체 평균 및 하위 유형별 평균)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상집단과 비행집단별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1> 및 <표 2-2>와 같다.

<표 2-1> 정상집단의 충동성, 공격성 및 폭력행동간 상관행렬표

	충동성	공격성	폭력행동	기물파손	성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	공갈협박
충동성		.47***	.24**	.29***	.21**	.15	.30***	.20*
공격성			.43***	.36***	.29***	.36***	.42***	.41***
폭력행동				.74***	.74***	.93***	.76***	.85***
기물파손					.59***	.60***	.50***	.52***
성폭력						.54***	.39***	.57***
신체폭력							.67***	.71***
언어폭력								.63***
공갈협박								

p<.01, *p<.001

<표 2-2> 비행집단의 충동성, 공격성 및 폭력행동간 상관행렬표

	충동성	공격성	폭력행동	기물파손	성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	공갈협박
충동성		.22***	.17***	.14***	.14***	.11**	.17***	.13***
공격성			.36***	.18***	.20***	.33***	.34***	.31***
폭력행동				.67***	.68***	.93***	.76***	.81***
기물파손					.59***	.56***	.35***	.48***
성폭력						.53***	.33***	.50***
신체폭력							.61***	.68***
언어폭력								.55***
공갈협박								

*p<.05, **p<.01, ***p<.001

Cronbach α = .97이었다.

측정 및 자료처리

본 연구의 측정은 연구대상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연구자와 보조원이 직접 질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상관분석, t-검증 및 변량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1>과 <표 2-2>는 충동성, 공격성, 폭력행동 및 유형별 폭력행동간의 상관행렬표이다. 전체적인 상관범위는 최저 .11~ 최고 .93으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폭력행동의 차이

학년 및 성별에 따라 폭력행동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점수치들은 폭력행동 경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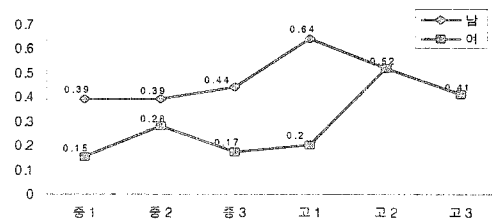
묻는 질문지의 문항에 대해 ○표 한 것의 합계를 한다.
 평균한 것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4점까지이다.

<표 3>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폭력유형별 평균점수

집단	폭력유형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정상집단	전체폭력비행	.39 (.43)	.15 (.17)	.39 (.34)	.28 (.39)	.44 (.32)	.17 (.21)	.64 (.56)	.20 (.19)	.52 (.47)	.18 (.28)	.41 (.32)	.23 (.30)	.47 (.41)	.20 (.26)	.34 (.34)
	공갈협박	.38 (.63)	.08 (.20)	.31 (.54)	.26 (.61)	.42 (.51)	.13 (.30)	.78 (.90)	.19 (.33)	.69 (.82)	.23 (.49)	1.00 (1.41)	.13 (.18)	.60 (.80)	.17 (.36)	.39 (.58)
	기물파손	.20 (.68)	.02 (.11)	.12 (.34)	.07 (.31)	.12 (.33)	.09 (.39)	.35 (.62)	.02 (.12)	.22 (.61)	.06 (.26)	.50 (.71)	.10 (.22)	.25 (.55)	.06 (.24)	.16 (.40)
	성폭력	.09 (.29)	.05 (.03)	.08 (.30)	.04 (.18)	.10 (.24)	.02 (.10)	.20 (.45)	.04 (.16)	.19 (.49)	.06 (.20)	.10 (.14)	.32 (.72)	.13 (.32)	.09 (.23)	.11 (.30)
	신체폭력	.40 (.46)	.12 (.23)	.42 (.36)	.25 (.44)	.49 (.39)	.13 (.20)	.63 (.55)	.15 (.23)	.50 (.43)	.13 (.27)	.25 (.07)	.16 (.19)	.45 (.38)	.16 (.26)	.31 (.32)
	언어폭력	1.27 (1.10)	.91 (.81)	1.37 (1.01)	1.27 (1.13)	1.40 (.94)	.81 (.85)	1.94 (1.12)	1.04 (.77)	1.42 (1.07)	.81 (.80)	1.00 (.71)	.60 (.55)	1.40 (.99)	.91 (.82)	1.16 (.91)
비행집단	전체폭력비행	1.08 (.69)	1.03 (.61)	1.24 (.75)	1.24 (.75)	1.24 (.85)	1.30 (.69)	1.24 (.85)	1.30 (.69)	1.24 (.59)	1.19 (.70)	1.19 (.70)	1.19 (.70)	1.19 (.70)	1.19 (.70)	
	공갈협박	1.27 (1.07)	1.47 (1.27)	1.47 (1.21)	1.46 (1.20)	1.46 (1.20)	1.70 (1.16)	1.70 (1.16)	1.70 (1.16)	1.83 (1.24)	1.83 (1.24)	1.53 (1.19)	1.53 (1.19)	1.53 (1.19)	1.53 (1.19)	
	기물파손	.82 (.87)	.70 (.80)	1.40 (1.24)	1.06 (1.19)	1.06 (1.19)	.95 (.98)	.95 (.98)	.95 (.98)	.96 (.99)	.96 (.99)	.98 (1.01)	.98 (1.01)	.98 (1.01)	.98 (1.01)	
	성폭력	.57 (.96)	.27 (.42)	.56 (.76)	.61 (.94)	.61 (.94)	.52 (.62)	.52 (.62)	.52 (.62)	.42 (.60)	.42 (.60)	.49 (.72)	.49 (.72)	.49 (.72)	.49 (.72)	
	신체폭력	1.12 (.59)	1.18 (.67)	1.24 (.73)	1.30 (.79)	1.30 (.79)	1.43 (.71)	1.43 (.71)	1.43 (.71)	1.26 (.74)	1.26 (.74)	1.26 (.71)	1.26 (.71)	1.26 (.71)	1.26 (.71)	
	언어폭력	2.11 (1.06)	1.89 (1.11)	2.45 (1.21)	2.39 (1.10)	2.39 (1.10)	2.34 (1.56)	2.34 (1.56)	2.34 (1.56)	2.58 (.79)	2.58 (.79)	2.29 (1.14)	2.29 (1.14)	2.29 (1.14)	2.29 (1.14)	

<표 3>을 보면, 정상집단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여자집단에 비해 남자집단에서 폭력행동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에, 비행집단에서는 학년간 차이가 적거나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과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학년 및 성별 변량분석을 한 결과, 학년 및 성별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와 함께 두 변인간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주효과($F(5, 783) = 2.339, p < .05$) 및 성별의 주효과($F(1, 783) = 26.259, p < .001$), 그리고 상호작용효과($F(5, 783) = 3.545, p < .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집단에 비해 남자집단의 폭력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폭력행동수준이 높다. 또한 학년×성별 역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변인 가운데 한 변인의 효과가 다른 한 변인에 따라 교차되고 있음을 의미

<그림 1> 정상집단에서 폭력행동의 학년×성별간 상호작용



한편, 비행집단의 학년간 폭력행동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5, 147) = .717$). 이러한 결과는 정상집단과는 다르게 비행집단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폭력행동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차이

충동성 및 공격성의 수준이 폭력행동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상집단 및 비행집단별로, 충동성 및 공격성 점수에서 각각 상위 25%집단과 하위 25% 집단으로 나누어 폭력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충동성 및 공격성수준의 상위 25%집단과 하위 25%집단간 폭력행동의 차이 분석

집 단	척 도	상위집단(25%)		하위집단(25%)		t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상집단	충동성	169	.42 (.48)	203	.24 (.30)	-4.393***
	공격성	168	.51 (.48)	171	.16 (.17)	-8.982***
비행집단	충동성	50	1.34 (.59)	17	.78 (.45)	-3.523***
	공격성	42	1.48 (.72)	30	.82 (.60)	-4.166***

***p<.001

<표 5> 정상집단과 비행집단간의 충동성, 공격성 및 폭력행동의 차이 분석

	집단	사례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자유도	t
충동성	정상집단	801	1.327 (.363)	942	4.757***
	비행집단	156	1.479 (.375)		
공격성	정상집단	802	.535 (.128)	945	.463
	비행집단	158	.540 (.142)		
폭력행동	정상집단	797	.302 (.358)	173.107	14.896***
	비행집단	158	1.164 (.710)		

***p<.001

<표 4>를 보면, 정상집단 및 비행집단 모두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 상위(25%)집단이 하위(25%) 집단에 비해 폭력행동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상집단 및 비행집단간 충동성, 공격성 및 폭력행동수준의 차이분석

정상집단 및 비행집단간의 충동성, 공격성 및 폭력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변인에 따라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동성수준과 폭력행동수준을 비교한 결과,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격성 수준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충동성 수준의 차이 분석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충동성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상집단 및 비행집단의 충동성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충동성 평균점수

집 단	중 학생						고등학생						합 계		총 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정상집단	1.41 (.41)	1.25 (.36)	1.31 (.33)	1.29 (.29)	1.38 (.38)	1.29 (.29)	1.28 (.41)	1.37 (.36)	1.38 (.35)	1.36 (.40)	.85 (.28)	1.07 (.14)	1.27 (.36)	1.27 (.31)	1.27 (.34)
비행집단	1.48 (.30)	1.40 (.44)	1.54 (.42)	1.46 (.37)	1.53 (.26)	1.46 (.44)	1.48 (.37)	1.48 (.37)	1.48 (.37)	1.48 (.37)	1.48 (.37)	1.48 (.37)	1.48 (.37)	1.48 (.37)	1.48 (.37)

<표 7> 학년 및 성별에 따른 공격성 평균점수

집 단	중 학생						고등학생						합 계		총 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정상집단	.51 (.13)	.52 (.12)	.51 (.14)	.52 (.14)	.53 (.13)	.54 (.11)	.56 (.13)	.57 (.13)	.57 (.13)	.52 (.11)	.52 (.25)	.56 (.16)	.53 (.15)	.54 (.13)	.54 (.14)
비행집단	.52 (.13)	.52 (.13)	.58 (.17)	.56 (.11)	.55 (.14)	.55 (.11)	.55 (.14)	.45 (.11)	.53 (.13)	.53 (.13)	.53 (.13)	.53 (.13)	.53 (.13)	.53 (.13)	.53 (.13)

한편, 학년 및 성별 충동성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정상집단 및 비행집단별로 이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정상집단에서는 성별 주효과($F(1, 736) = .001$), 학년 주효과($F(6, 736) = 1.469$) 및 성별×학년의 상호작용효과($F(5, 736) = 1.55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집단에서도 학년 주효과($F(6, 143) = .746$)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학년 및 성별에 따른 공격성 수준의 차이분석

학년 및 성별에 따라 공격성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상집단 및 비행집단의 공격성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한편, 학년 및 성별에 따른 공격성 수준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별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상집단에서는 성별 주효과($F(1, 774) = .118$), 학년 주효과($F(5, 774) = 1.847$) 및 성별×학년의 상호작용효과($F(5, 774) = 1.356$)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집단에서도 학년 주효과($F(5, 147) = 2.158$)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이 충동성 및 공

격성과 상관이 있는지, 나이가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에 따라 폭력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변인들이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정상집단과 소년원생들로 구성된 비행집단별로 충동성, 공격성 및 폭력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r = .17 \sim .47$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동성과 폭력행동과의 정적 상관관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폭력적인 청소년들의 충동성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 높음을 보여준 연구(Grosz 등, 1994) 및 충동성이 높을수록 재범으로 인한 가석방 실패율이 높아진다는 연구(Heilbrun 등, 1978)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격성과 폭력행동간의 정적 상관관은 Mehrabian(199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충동성과 공격성간의 밀접한 상관관을 보여준 선행연구(조은경, 1997)와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충동성과 폭력행동간의 상관보다 공

격성과 폭력행동간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간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충동성보다 폭력행동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비행집단의 폭력행동은 정상집단에 비해 충동성 및 공격성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학년 및 성별에 따라 폭력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집단 및 비행 집단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정상집단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폭력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행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행동에서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심용철과 양돈규(1999)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료조사 시기의 차이, 표집과정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 및 폭력행동 문항의 차이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여학생 집단에 비해 남학생 집단의 폭력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집단에 비해 남학생집단의 폭력행동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많은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집단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폭력행동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여학생집단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폭력행동 수준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청소년비행이 저연령화하는 경향(청소년백서, 1998)과 관련하여 볼 때, 여학생집단에 비해 남학생집단에서 폭력행동의 저연령화 경향이 더 두드러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비행집단에서도 학년에 따라 폭력행동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문제행동(폭력행동 포함)에서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비행집단은 연령에 관계 없이 폭력행동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상집단 및 비행집단별로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에 따라 폭력행동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두 집단 모두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Grosz 등(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 및 공격성이 폭력행동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충동성, 공격성 및 폭력행동 수준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충동성 수준 및 폭력행동 수준에서는 비행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공격성 수준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정상집단 및 비행집단별로,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충동성 수준 및 공격성 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용철과 양돈규의 연구(1999)는, 청소년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음주나 흡연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음주나 기타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보다 자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Bukstein, 1996) 연구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폭력행동이 증가하는 결과와 관련시켜 볼 때, 학생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이 음주나 기타 약물사용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빈약한 가족간의 유대 및 학교에서 동료와의 빈약한 유대 또한 문제행동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ner & Ellickson, 1996).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개개인들의 물질남용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정 및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청소년 문제해결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정상집단의 경우, 연구대상이 중소도시인 C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비행집단은 남학생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비행집단의 남녀차이를 알 수 없었던 점이다. 따라서 차후에 남녀 모두를 포함한 비행집단을 대상으로한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은 충동성 및 공격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충동성 및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행동 수준이 높다.

셋째, 정상집단의 폭력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폭력행동수준이 높다. 그러나 비행집단에서는 연령증가와 상관없이 어린 연령에서 폭력행동이 일반화되고 있다.

넷째, 비행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충동성 및 폭력행동 수준이 높다.

참고문헌

- 김준호(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청소년폭력 국제학술대회 자료집(청소년개발원), 9-29.
- 노안녕(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대검찰청(1998). 범죄분석.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백서.
-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 심용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용철(1996). 학교폭력의 근원. 학교폭력: 현실과 대책(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18-47.
- 심용철, 양돈규(1999). 학생청소년의 비행경향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호(출간중).
- 이현수(1992). 충동성 검사. 한국가이던스.
- 임영식(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5권, 제 3호, 1-26.
- 조은경(1997).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 8권, 제 2호, 125-178.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ukstein, O. G. (1996). *Aggression, violence, and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s. Child &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5(1)*, 93-109.
- Cleckley, H. C. (1976). *The mask of sanity*(5th ed.). St. Louis, MO: Mosby.
- Dickman, S. (1990).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74-290.
- Eisen, P. (1977). *Antecedents of juvenile criminal behavior. Mental Health in Australia, Vol. 1(6)*, 211-217.
- Eysenck, H. J. (1977). *Crime and personality* (3rd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arrington, D. P., Loeber, R., & Van Kammen, W. (1990). Long-term criminal outcomes of hyperactivity-impulsivity-attention deficit and conduct problems in childhood. In L. N. Robins & M. Rutter(Eds.),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pp. 62-8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sz, D. E., Lipschitz, D. S., Eldar, S., & Finkelstein, G. (1994). *Correlates of violence risk in hospitalized adolescents. Comprehensive Psychiatry, Vol. 35(4)*, 296-300.

- Gustafson, R. (1994). *Alcohol and aggression.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Vol. 21(3-4)*, 41-80.
- Hansen, C. P. (198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ccident involved employee. *Journal of Business & Psychology, Vol 2(4)*, 346-365.
- Heilbrun, A. B., Heilbrun, L. C., Heilbrun, K. L. (1978). Impulsive and premeditated homicide: An analysis of subsequent parole risk of the murderer.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69(1)*, 108-114.
- Kingery, P. M., Mirzaee, E., Pruitt, B. E., & Hurley, R. S. (1991). *Rural communities near large metropolitan areas: Safe havens from adolescent violence and drug use? Health Values: the Journal of Health Behavior, Education & Promotion, Vol. 15(4)*, 39-48.
- Mehrabian, A. (1997). Relations among personality scales of aggression, violence, and empathy: Validational evidence bearing on the Risk of Eruptive Violence Scale. *Aggressive Behavior, Vol. 23(6)*, 433-445.
- Moffitt, T. E. (1993). Life-course-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Robins, L. N. (1978). Sturdy predictors of adult antisocial behaviour, replications from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Medicine, 8*, 611-622.
- Saner, H., & Ellickson, P. (1996). Concurrent risk factors for adolescent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Vol. 19(2)*, 94-103.
- Simeon, D., Stanley, B., Frances, A. J., & Mann, J. J. (1992). Self-mutilation in personality disorders: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correlat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49(2)*, 221-226.
- Varma, V. K., Basu, D., Malhotra, A., & Sharma, A. (1994). Correlates of early- and late-onset alcohol dependence. *Addictive Behaviors, Vol. 19(6)*, 609-619.
- White, J. L., Moffitt, T. E., Caspi, A., Bartusch, D. J., Needles, D. J., & Stouthamer-Loeber, M. (1994). Measuring impulsivit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 to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03, 2*, 192-205.
- Wilson, J. Q., Herrnstein, R. J.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 Schuster.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er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9. Vol. 12. No. 2. 24-34.

The Correlation of Impulsiv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ce

Shim, Eungcheul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goals of the present studies are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impulsiv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an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violent behavior, impulsivity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825 students attending three middle and high schools and 159 juvenile delinquents in C city. The subjects were asked to rate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concerned with impulsiv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As the results, the correlations of the levels of impulsiv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were significant, especially significant in juvenile delinquent group as a pose to the normal adolescent group. Generally, the levels of violent behavior were higher in the high group than in the low group in the levels of impulsivity and aggression. The levels of violent behavior were higher in the high graders than in the low graders in the normal adolescent group, but were not different between grades in the juvenile delinquent group. Also, the levels of violent behavior were higher in the adolescent boys than with girls.